

정재민의 ‘죄와 벌’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정재민
변호사·작가



얼마 전 2005년 신정동 연쇄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이 DNA 대조를 통해 20년 만에 밝혀졌다(범인은 제대로 벌을 받지도 않고 2015년에 이미 암으로 사망했다). 사건 당시 60대였던 그는 2005년 6월에는 20대 여성을, 11월에는 40대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했다. 피해자들은 그 건물에 있던 병원에 갔다가 관리인이 안내하는 대로 지하 창고로 따라가 변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모두 일상에서 수시로 건물을 드나들며 관리인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보도되면 일부 여성들은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관리인과 접촉할 때마다 불안과 의심을 하게 된다. 반대로 대다수의 선량한 관리인들은 억울하게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범죄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신뢰를 의심으로 깨부순다.

사기·절도·횡령은 인간관계 신뢰 배반
판사일 때는 범죄의 본질을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난해부터 변호사를 하면서는 범죄가 결국 인간관계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사기는 물론이고 절도·횡령·살인·폭력 같은 범죄도 갈등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피해자와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은 변호사가 되어 보니 비로소 ‘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어서다. 판사일 때는 재판 당사자가 시스템에 따라 배정되었다. 판사도 당사자도 서로를 선택한 적이 없다. 내가 법정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업무의 대상이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뢰인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을 나누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함께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라는 것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소수의 사건만 맡아서 깊이 관여하다 보니 관계가 더 깊다. 이런 관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맺을 수는 없다.

나는 형사 사건을 많이 하는데 요즘 범죄 중 사기가 가장 많다 보니, 상담하러 온 분들에게 나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보통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다 받고 일을 시작하지만 나는 다 받기 전에도 조만간 준다고 하면 믿고 일을 하곤 했다. 그러다 결국 못 받는 경우가 받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았다. 수임료를 연장신문기일 4시에 자동이체로 보냈다는 거짓말을 믿고 2시에 재판에 가서 열심히 변론한 적도 있다. ‘접견 피상’(변호사 선임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선임할 것처럼 구치소로 부르는 일)도 여러 번 당했다. ‘컴퓨터 수리 사기’를 당한 이야기는 이 코너에서 말한 바 있다.

사기를 당할수록 사람을 믿는 정도가 감소한다. 판사일 때는 9할은 믿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가 되고서 뒤통수를 맞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의 기본값이 ‘블랙’ 무슨 요일의 주가처럼 푹푹 떨어진다. 그리고 나니 우리 사회가 범죄를 처벌하는 것도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타인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원칙적으로 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만큼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사생활의 울타리 안까지 들어와서 수사하고, 검사가 사회 전체를 대표해서 기소하고, 판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해서 처벌한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는 믿음이 생겨야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갈 수 있는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신뢰 자체가 정의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

아 다른 종족을 지배하는 비결이 허구를 집단적으로 믿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그 예시로 정의를 든다. 정의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20년 전 신정동 살인사건의 범인을 지금까지 쫓아내서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서로를 더 많이 의심해야 하고, 더 믿지 못하고, 더더욱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 행복하게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이 존재하는 것도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법의 위력을 느낀다. 파란불이 들어오면 육중한 화물 트럭들도 일제히 횡단보도 앞에 멈추어 서고 어린이와 강아지도 두려움 없이 건넌다. 그런 신뢰는 공공재이다.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도 차들이 횡단보도를 향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이받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면 무법천지가 된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도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 얻는 존재

관계의 바탕은 서로에 대한 신뢰

법은 사람 간 신뢰 보호하는 역할

‘죄는 처벌’ 믿음 있어야 관계 가능

법치주의 선봉에 서야 할 정치인들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룰 바꿔서야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어야 존재하는 것이다. 제도적 껍데기만 존재할 뿐 많은 사람이 실제로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면 그것은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소수도 배려하면서 다양한 입장을 조율해내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입장 변화로 인한 유불리를 떠나서 ‘내로남불’ 없이 지켜나가는 것이다. 요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선봉에서 있는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 편파 뉴스, 음모론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수사나 재판에 압력을 넣고, 경쟁자에게 불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꾸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진짜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존재를 믿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어떤 목사들을 보면 진짜 신이 있다고 믿는지, 그냥 목사라는 직업을 유지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처럼. 좌우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제도들을 정적 제거와 정치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 진짜 존재한다고 믿는 것 같지



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정치인들도 믿지 않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정의를 일반 국민이 존재한다고 신뢰할 수 있을까. 목사도 믿지 않는 신을 신도가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회에 실망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도 더 허물어져 간다.

그렇게 실망한다고 타인도, 사회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 혼자 살면 편할 뿐,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 무인도에서는 행복도, 풍요로운 삶도 없다. 그러니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러려면 믿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니 문제이다. 갈등도, 범죄도 타인과 사이에 존재한다. 전설의 복서 메이웨더처럼 사람을 온전히 믿지 않고 끊임없이 거리 조절을 하면 상대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행복할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전투 모드로 살 수도 없다.

안 믿으면 안 당해도 행복할 순 없어

자연히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얼마나 믿느냐고 물으면 답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는 절반을, 어떤 이는 3할만 믿는다고 한다. 어떤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안 믿고 타인에 대해서 경비업체의 보안 시스템 같은 것을 가동하고 있고, 어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듯 어지간하면 타인을 믿어 주려 한다.

그럼에도 나는 좀 더 믿어보려 한다. 해외를 하는 나라는 침체되어 가고 교역이 많은 나라가 변영과 풍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믿어야 좋은 관계가 많아지고 더 행복해질 기회가 많을 것 같다. 내가 먼저 상대를 믿고 상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상대가 내게 자신의 세계의 문을 열고 환대해 줄 리가 없다. 물론 누군가를 더 믿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믿다 보면 때로 배신당하고 상처받겠지만, 그것을 거둬들이다 보면 맺집도 생기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선구안도 좋아질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을, 행동보다는 삶을 근거로 믿어야 할 것이다. 배신당할까 봐 타인을 믿지 않고 문을 닫고 조심조심 살면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 나는 후회가 상처보다 두렵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첫 장면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독백으로 해 주는 이야기다. “옛날 이탈리아에 가난한 거지가 살았는데 매일 교회에 가서 성자상 앞에 꿇어앉아 빌었다. 제발, 제발, 제발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던 성자상이 참다못해 사람으로 변해서 그에게 말했다. 제발, 제발, 제발 복권이라도 사고 말해라.” 행복은 서로 신뢰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긴다. 아무도 믿지 않으면서 행복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자상이 참다못해 말할지도 모른다. “제발, 제발, 제발 사람을 믿어 보고 말해라.”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미제로 남아 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확인됐다. 사진은 2005년 연쇄살인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연합뉴스〉

정재민 변호사, 작가. 20여년간 판사,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으로 일했다. ‘보헤미안 랩소디’(세계 문학상 수상작) 등의 소설과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사회’ 등의 에세이집을 냈다. 현재 법무법인 예문정애포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이혼·상속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